

전국기능경기대회 기념 마라톤·걷기대회

걷고 뛰며 근로자 건강 지킨다

“건강을 함께 지켜요”

■ 대한산업보건협 광주센터

‘정기적인 건강진단 내몰 보호 기업 보호’

이번 대회에 40명의 임·직원이 출전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센터(이하 광주센터) 마라톤동호회의 슬로건이다.

또한 이들은 “근로자 산업보건을 위해 R (Responsibility·책임)·P (Passion·열정)·C (Challenge·도전) 정신으로 힘차게 뛰겠다”며 대회 출전 각오를 다진다. 산업보건이란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을 뜻한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일과 사람과의 조화’를 목표로 1963년 설립된 공익기관으로 40여년간 근로작업 환경개선 등을 위해 앞장 서 왔다. 현재 전국 15개 산업보건센터에서 900여명의 전문인들이 건강진단, 쾌적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한 작업환경측정과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

회원 40명 친목·화합레이스

특히 최근에는 사무실·학교·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컨설팅과 석면조사업무 그리고 작업환경을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인간공학컨설팅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광주센터는 “지역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회에 참가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책임·열정·도전 정신 발휘

환경위생부·건강진단부·보건관리부·총무부·분석검사실의 직원들로 구성된 40여명의 동호회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건강뿐만 아니라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회 당일 참가자들은 음식 한가지씩을 준비해 완주 후 특별한 회식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회에 처음 출전하는 박정재·정해서 등 환경위생부 신입직원들은 남다른



이번 대회에 40여명의 직원들이 참가하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센터는 책임·열정·도전 정신으로 힘찬 질주를 펼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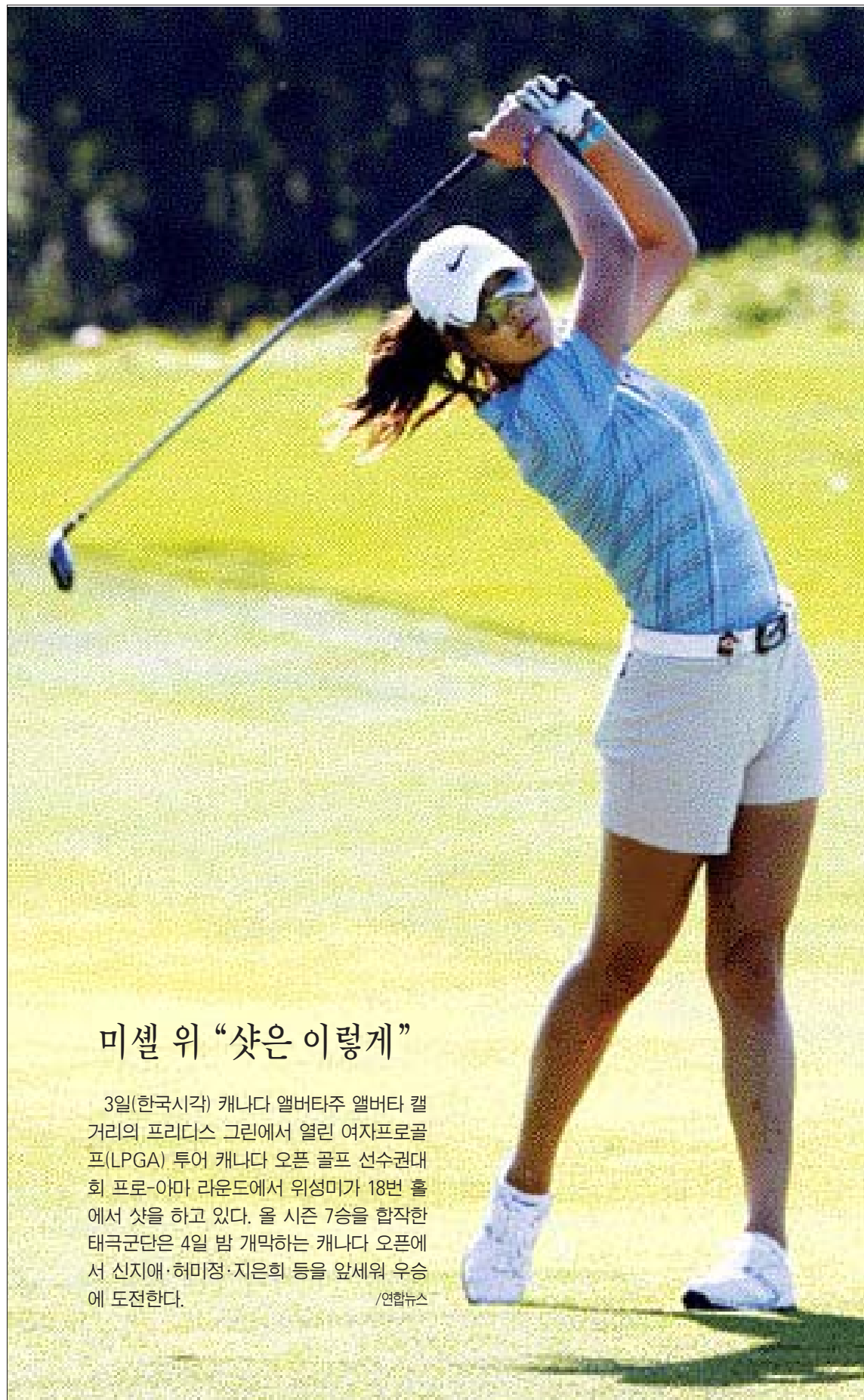
각오로 바쁜 시간을 나눠 몸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센터 김재웅 사무국장은 “참가자 모두 책임·열정·도전 정신을 재무장하는 기

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이번 기회가 직원들의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대회 출전 소감을 밝혔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센터는 오는 11월 하남산단 흑석사거리로 사옥 이전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미셸 위 “샷은 이렇게”

3일(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앨버타 캘거리의 프리디스 그린에서 열린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오픈 골프 선수권대회 프로-아마 라운드에서 위성이 18번 홀에서 샷을 하고 있다. 올 시즌 7승을 합작한 태극군단은 4일 밤 개막하는 캐나다 오픈에서 신지애·허미정·지은희 등을 앞세워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양용은 ‘PGA 올해의 선수’ 넘본다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개막... 존슨·페리와 동반플레이

아시아남자 최초의 메이저골프대회 챔피언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두번째 대회 도이체방크 챔피언십에서 잭 존슨, 케니 페리(미국)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4일(이하 한국시간) 밤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TPC)에서 개막하는 도이체방크 챔피언십 1,2라운드 조편성을 3일 발표했다.

양용은은 5일 오전 2시10분 1번홀에서 1라운드,

5일 오후 9시40분 10번홀에서 2라운드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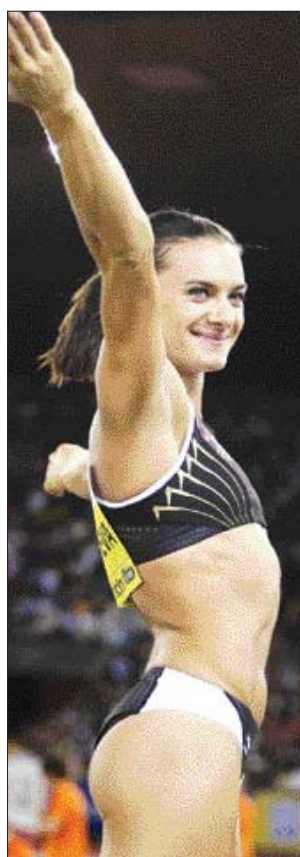
2007년 마스터스에서 그린재킷을 입었던 존슨은 올 시즌 2승을 포함해 PGA 투어 통산 6승을 올렸으며 페리는 올해 2승을 포함해 14개의 우승컵을 수집한 베테랑이다.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은 4일 오후 9시16분 라인어 무어, 저스틴 레너드(이상 미국),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은 4일 오후 9시40분 스티브 마라도, 팀 클라크(이상 미국)와 함께 티오프한다.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의 1라운드 출발 시간은 5일 오전 1시22분.

플레이오프 중간 순위에 따라 조가 편성되면서 1위 골프왕제 타이거 우즈는 2위 스티브 스트리커, 3위 히스 슬로컴(이상 미국)과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한편 PGA 투어 공식홈페이지는 우즈와 함께 양용은 등 메이저대회 챔피언들을 올해의 선수 후보로 꼽았다. PGA 투어는 우즈가 올 시즌 5승을 올렸지만 메이저대회 우승컵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양용은을 비롯해 메이저대회 챔피언 중 하나가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한다면 올해의 선수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27차례 세계新 세운 미녀새 이신바예바
‘아스투리아스 왕자상’ 수상



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세계신기록 보유자인 엘레나 이신바예바(27·러시아·사진)가 스페인의 저명한 ‘아스투리아스 왕자상’ 스포츠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AFP통신이 3일(한국시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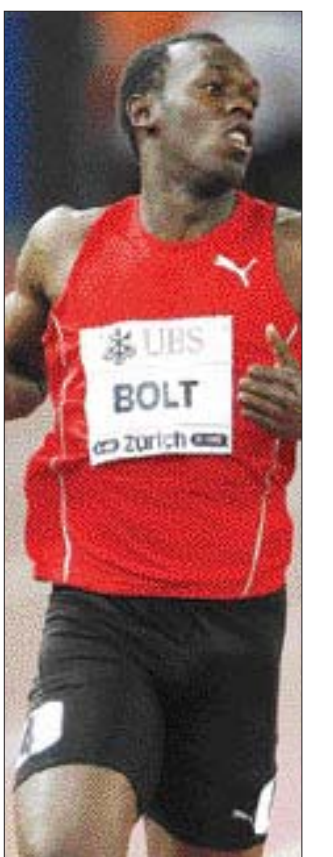
아스투리아스 왕자상 재단은 이신바예바를 수상자로 뽑으면서 ‘역사에 남을 기록을 세우는 등 언제나 최고 선수였다.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5m를 넘었고 27차례나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끝난 제12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자만심 탓에 3회 연속 실패라는 흔치 않은 기록을 남기고 무너졌던 이신바예바는 지난주 열린 취리히 육상대회에서 5m06을 넘어 작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신이 세운 세계기록 5m05를 1cm 경신하면서 견제를 뺐다.

아스투리아스 왕자상은 스페인의 펠리페 왕세자의 공식 칭호 ‘아스투리아스’를 따 1981년부터 만든 상으로 예술, 사회과학, 스포츠, 문학 등 8개 분야에서 ‘새로운 경지’의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상금은 5만유로이다.

/연합뉴스

내일 ‘골든리그’ 200m 출전 ‘육상 황제’ 볼트
대구육상대회 100m 뿔 듯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23·자메이카·사진)가 오는 25일 2009 대구국제육상대회에 출전할 때까지 쉬 없이 레이스에 나선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 따르면 볼트는 5일 오전 4시15분(한국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골든리그 메모리얼 반 담’에서 남자 200m에 출전한다. 100m에는 아사파 파월(27·자메이카)과 타이슨 게이(27·미국)가 나선다.

볼트는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00m는 충분히 뛰었지만 200m는 그러지 못했다. 지난 주말 스위스 취리히에 있을 때 보다는 몸이 가볍다”고 말했다.

볼트는 오는 12, 13일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펼쳐질 IAAF 월드어슬레틱스 파이널에서는 100m와 200m에 모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월드어슬레틱스 파이널은 각 종목 왕중왕을 가리는 결정판이다.

볼트는 이어 2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골든그랑프리대회에 참가한 뒤 25일 대구스타디움에서 펼쳐질 대구국제육상대회에 온다. 달구벌에서도 100m를 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SINCE 1982

www.kjhr.com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안보입니다. 3. 가격이 합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